

현대의 번역이론에서 본 주기도 번역의 문제

민영진*

1. 우리말 주기도의 문제

1884년 『예수성교전서 맞디복음』에서 번역되기 시작하여, 1887년 『예수성교전서』에서 개정되고, 다시 1892년의 『마태복음전』에서 새롭게 번역되고, 1895년과 1898년의 『마태복음』에서 거듭 개정되고, 드디어 1900년 『신약전서』에서 오늘의 주기도의 뼈대가 이루어지고, 1956년에 확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역』의 주기도는 다음과 같다.

(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¹⁾

(『개역한글판』 마 6:9-13)

주기도(主祈禱)가 그리스어 원문과 관련하여 그 본래적 의미가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말로 된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오늘의 우리나라 신도들이 현재의 주기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못한 우리말 표현, 의미 없는 표현, 우리말 맞춤법을 어기는 표현, 신학적으로 중요한 관점이 왜곡되는 현상들을 우선 지적해 볼 수 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호격 조사 “-여”가 “아버지”에게 붙어서 “아버지여”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는 받침 없는 체언(體言) 아래에 쓰이어서, 느낌이나 호소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助詞)이다. 예를 들면, “동포여,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구약학.

1) 찬송가공회에서 출간된 찬송가 면지(面紙)에 기재된 주기도는 이 문장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구역(舊譯)의 잔재이다. 우리말 번역의 “대개”에 관한 연구로서는, 정길남 교수의 “국역 성서에 나타난 ‘대개’의 표현 연구”가 있다. 그의 저서, 『성서의 우리말 연구』(서광학술자료사, 1994), 43-56. 정길남 교수의 이 저서에는 주기도에 관한 연구는 이것 말고도,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말 연구”가 더 있다.

꺾기하라”, “친구여, 모두 모이자”, “신도들이여, 회개합시다”, “학도들이여, 학문 연구에 매진하라” 등과 같은 표현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을 부를 때 쓰이는 조사이다. 높으신 하나님께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부를 때 호격 조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 호격 조사를 안 쓰거나, 다른 경우에 쓰는 것에서 얼마든지 그 실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의미 없는 표현이라 함은 “대개”와 같은 말이다. 현재 『개역』에는 이 말이 없다. 그러나 찬송가공회에서 출판하는 『찬송가』의 면지(面紙)에 실린 주기도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있다. 큰 대(大) 자에 평미레 개(概)를 합친 “대개(大概)”나 큰 대(大) 자에 덮을 개(蓋)를 써서 만들어진 “대개(大蓋)”를 쓰거나, 어느 표현을 쓰든지, 오늘의 주기도에서 이 말은 의미가 없거나, 엉뚱하게도 다른 말로 오해된다. 본래 “대개”란 이유를 말하는 부사의 구실을 하는 말이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말은 본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혹은 “....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나이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개(大概)”는 “대부분”이나 “개요(概要)”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대개(大蓋)”는 부사어로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면, 그리스어 본문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뜻이 되거나, 불경스럽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대강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뜻이 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말 맞춤법을 어기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임하옵시며”의 “-하옵시며”, “양식을 주옵시고”와 “사하여 주옵시고”의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마옵시고” 등이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은 “하시오며”, “주시옵고”, “마시옵고”로 고쳐져야 하는 표현들이다. 이 밖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능동의 기능은 없고, 수동의 의미를 지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로 표기가 고쳐져야 한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관점들이 왜곡된 예는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표현이다. 본래 이것은 우리말에서 지금의 “나라”는 한 세기 전 번역 당시에는 “나랏”라고 하여 히용 종성(終聲)을 지닌 말이었으므로, 받침이 있는 히용 종성 명사이므로 거기에 붙는 조사는 당연히 “가”가 아니라 “이”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히용 종성을 지닌 말이 아니므로, “-이”보다는 “-가”가 더 적절한 조사이다.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표현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나라”가 히용종성 명사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가 붙게 되었다는 배경을 모르는 오늘의 독자들은 이 표현을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이해해 버린다는 것이다. 즉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나라로 임하시기를 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연구에서 별도로 취급될 터이지만, 이 밖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과 관련된 신학적 왜곡의 문제도 있다.

2. 나이다의 번역 이론에 비추어 본 『개역』의 주기도

현대의 번역 이론을 대표하는 유진 나이다²⁾의 번역 이론의 핵심을 알루 모졸라가 다음과 같

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³⁾.

언어마다 제각기 자체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질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문법적 형식이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라면, 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언어로도 말할 수 있다. 메시지의 내용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형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성서 언어도 다른 여타의 많은 여러 자연 언어처럼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성서의 본문을 기록한 필자들은 자신들의 글이 이해되기를 기대했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한 언어로 쓰여진 성서의 본문을 다른 언어로 옮길 때 성서의 필자들이 이해한 그 의미를 다른 언어로 재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⁴⁾

우리의 입장에서 달리 요약하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그 자료언어(資料言語 source-languages)인 히브리어/아람어 및 그리스어로 쓰여진 본문의 메시지를 수용언어(受用言語 receptor-language)인 우리말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때 우리말은 “자료언어의 메시지에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대응 표현(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 of the source-language message)”을 써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본문의 의미(意味)이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문체(文體)라는 것이다.

나이다는 번역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번역에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체계가 있어 왔음을 확인한다. 하나는 “단어 대 단어(word-for-word)”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형식일치번역(形式一致翻譯 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대 의미(sense-for-sense)”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내용동등성번역(內容同等性翻譯 Dynamic Equivalent Translation)⁵⁾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행간번역(行間翻譯 Interlinear Translation)이라는 것이 바로 “단어 대 단어”의 접근 방식을 취한 형식일치번역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번역에서는 GNB 같은 것은 “의미 대 의미” 접근을 시도한 내용동등성번역의 표본이라고

2) Eugene A. Nida는 원문의 형식을 번역에서도 그대로 재생시키는 축자번역을 형식일치의 번역(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ng), 혹은 형식대응의 번역(Formal equivalence translating)이라고 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을 내용동등성 번역(Dynamic equivalence translating)이라고 한다. 그는 후자를 방법론적으로 발전시켰다. 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1964), pp. 165,171-5; 내용동등성 번역의 필요성과 그 개념 규정 및 실제적 방법에 관해서는,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1969, 1982)에 자세히 진술되어 있다. 그는 내용동등성 번역을 달리 기능적 대응어 번역(Functional equivalence translating)이라고도 부른다.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번역이론을 사회기호론적(Sociosemiotic) 접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TST*와 *TPT* 이후 더욱 전문화된 그의 번역이론은 다음과 같은 책들에 상술되어 있다. idem, *Translating Meaning* (California,1982); E. A. Nida, J. P. Louw, A. H. Snyman and J. W. Cronje, *Style and Dis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BSSA,1993); E. A. Nida, *Signs, Sense, Translatio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1984). Jan de Waard and Eugene A. Nida,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ashville/Camden/New York,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3) Aloo Osotsi Mojola, "Rethinking the Place of Nida's Theory of Translation in the New Millennium -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a Critical Assessment", *Tell Me the Word Easy To Understand - Textual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In Honor of Young-jin Min* vol.1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0) ed. by Tai-II Wang, pp. 277-304. 이하 Aloo로 인용할 것임. 이 책은, 외국인들의 논문은 영어와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실었다.王大일 편, 『좀 쉽게 말해 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 1권』 (대한기독교서회, 2000), _____ 『말씀의 뜻 밝혀주시오: 주석과 성서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 2권』 (대한기독교서회, 2000).

4) Aloo, 282

5) 후에 이 용어는 기능동등성번역(機能同等性翻譯 Functional Equivalent Translation)이라는 말로 보충 설명된다.

볼 수 있다. 언어마다 문법 구조와 사고 구조가 다르고, 제각기 문법 구조나 사고 구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여러 특질을 더 지니고 있는 데에다가, 또 언어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 “단어 대 단어”의 접근 방식이란 결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유일한 번역 방법으로서 적절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다는 점을 일찍이 나타내는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주기도를 먼저 “단어 대 단어”적 접근 방법으로 행간번역을 시도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어순에 맞추어 정리해 본다. 대응어 선택에도 논란이 있으므로 더러는 『개역』의 것을 일단 그대로 활용해 본다. 우리말 문법범주(文法範疇)에 들어 있지 않은 요소는 달리 변형(變形 alteration)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해 볼 것이다. 자료언어의 문법에는 있으나 수용언어의 문법에는 없는 요소들은 삭제(削除 subtraction)할 것이다. 그리스어 원문 구조에는 없으나 우리말 어법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사(助辭) 같은 것은 첨가(添加 addition)한다. 존대법(尊待法) 같은 것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말 번역에는 한 발자국도 접근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임시로 적용해 본다. 이 번역은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주기도 번역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작 작업일 뿐이다.

행간번역 주기도

(9) πατερ ημων ο εν τοις ουρανοις

아버지 우리의 안에 그 하늘

ανιασθητω το ονομα σου

거룩하여지십시오 그 이름 당신의

(10) ελθετω η βασιλεια σου

오십시오 그 나라 당신의

νενηθητω το θελημα σου

이루어지십시오 그 뜻 당신의

ως εν ουρανω και επι γης

처럼 안에 하늘 그리고 위에 땅

(11) τον αρτον ημων τον επιουσιονδος ημιν σημερον

그 빵 우리의 그 필요한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12) και αφες ημιν τα οφειληματα ημων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빚 우리의

ως και ημεις αφηκαμεν τοις οφειλεταις ημων

처럼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였습니다 그 빚진 이들에게 우리의

(13) και μη εισενενκης ημας εις πειρασμον

그리고 마십시오 테리고가지 우리를 안으로 시험

αλλα ρυσαι ημας απο του πονηρου

도리어 이끌어내십시오 우리를 에서부터 그 악

οτι σου εστιν η βασιλεια και η δυναμις και η δοξα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

εις τους αιωνας αμην

까지 그 영원 아멘

아무리 형식일치를 주장하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행간번역을 일반적인 번역이라고는 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어순(語順)만큼은 비록 원문의 것과는 다르더라도 수용언어의 법칙을 존중하여 바꾸어야 한다는 정도의 이해와 아량은 있다. 그래서 위의 행간 번역을 우리말 어순을 따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개별 단어는 다 번역하여 수량적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 번역이라고 부른다.

단어 대 단어 번역 주기도

(9)그 하늘 안에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10)당신의 그 나라가 오십시오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11)우리에게 필요한 그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12)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빛진 이들에게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용서하십시오
(13)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
도리어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십시오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
그 영원까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순을 이렇게까지 바꾸었어도 위의 번역은 우리말이 아니다. 그리스어로는 위의 형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위의 문체나 문장 구조는 우리말로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어 대 단어”적 접근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번역에서는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마다 제각기 자체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말 문법과 어법의 구조가 살아나야 하고 원문의 어법과 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문법적 형식이나 문체나 운율이나 억양이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라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을 유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포함한 문법적 형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 짧은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형식일치번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위의 “행간번역”이나 “단어 대 단어”의 번역에서 확인하였듯이 자료 본문의 문법적 문체적 형식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수용 언어에서 재생된다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수용언어의 문법적 패턴과 문체의 패턴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용 언어 독자는 본래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본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의 한국말 번역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배후에는 형식일치 번역이 우리의 본문 이해를 방해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3. 내용동등성번역의 3단계

3.1. 자료언어의 문법적 관계와 의미의 분석(分析)

번역의 첫 단계는 자료언어(資料言語) 혹은 원천언어(源泉言語) 메시지의 표면구조(表面構造)를 분석하는 것이다.⁶⁾ 먼저, 낱말과 낱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 혹은 개별 낱말과 결합된 낱말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낱말의 의미, 낱말들이 결합되면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1) 개별 낱말의 의미, 그리고 그 낱말이 다른 낱말과 결합될 때 가지게 되는 의미 관계를 결정한다.

주기도의 경우라면, 김창락 교수의 다음과 같은 통찰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첫째 뱀말에 대한 올바른 주석은 거기에 사용된 몇몇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첫째 뱀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뱀말의 문장론적 특징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그것이 주기도문의 전체 뱀말 가운데서 다른 뱀말들과 비교할 때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어떠한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지를 관별해 내고 이것을 해석의 큰 틀로 삼아야 한다.⁷⁾

개별 낱말의 의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오노마(ονομα)”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름”이라고 하는 지시적 의미를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명사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지시한다. 이것이 바로 한 낱말이 다른 낱말과 결합될 때 가지게 되는 의미 관계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2) 개별 낱말들이 지닌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 낱말과 낱말이 결합되어 관용구(慣用句)를 이룰 때 가지게 되는 지시적 의미를 결정한다.

주기도 번역의 경우, 개별 낱말들이라고 하면, 11절의 “아르톤 (αρτον 빵, 양식, 떡거리)”, “에 피우시온 (επιουσιον 일용할, 필요한)”, “오페일레마타 (οφειληματα 빛, 죄)”와 “오페일레타이스(οφειληταις 채무자, 죄인)”, 13절의 “페이라스몬 (πειρασμον 시험, 유혹)” 등 개별 낱말들이 지닌 지시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낱말과 낱말이 결합되어 관용구를 이루는 경우는, 12절의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ως και ημεις αφηκαμεν τοις οφειλεταις ημων)”에서 “카이 헤메이스”(και ημεις 문자대로는 “그리고 우리가”)의 지시적 의미(“우리도”), 관용구는 아니지만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πατερ ημων ο εν τοις ουρανο)

6) 필자가 알기로는 주기도의 표면구조와 심층구조를 모범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작업이 있다. 박창해, “주기도문의 통어 구조”, 『성서한국』 38/1(1992년 6월), 10-24쪽.

7) 김창락, “주기도문 번역 문제” 2001년 1월 15일 한국가독교총연맹과 대한선서공회 공동주최 주기도 세미나 자료집에서 인용한 것임. 그의 글은 현재의 『성경원문연구』 8집에 실려 있다.

ις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말에는 없는 “동사 없는 관계대명사 절(節)”의 지시적 의미 (“하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3)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를 결정한다. 즉, 언어 사용자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낱말들과 낱말들의 결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언어가 지닌 내포적 의미를 결정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기도의 경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이들과, 그리스어 번역처럼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αγιασθητω το ονομα σου)”라고 기도하는 이들과, 영어 번역처럼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기도하는 이들과,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리스어로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고 히브리어로 가르치셨다면, “이트카다쉬 슈메카 (שמך שׁקדשׁ)” (긴스백, 텔리치 번역 주기도)라는 말로 기도한 이들이 동일한 반응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αγιασθητω το ονομα σου)/이트카다쉬 슈메카(שמך שׁקדשׁ)”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여 이 문법 구조를 신적수동태(divine passive)로 보는 이들과, 같은 본문을 정말론적 윤리적으로 해석하여 수동태의 에이전트(agent)를 사람으로 보는 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할 것이다.

3.2. 자료언어의 분석자료를 수용언어로 이전(移轉)시킨다

번역자는 분석된 자료를 A 언어에서 B 언어로 옮긴다. 이 이전(transfer)은 번역자의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작업으로 해 볼 수도 있다. 분석된 짧은 단문(短文) 혹은 핵문(核文)을 수용언어로 옮겨보는 것이다.

3.3. 분석되고 이전된 자료 언어의 메시지를 수용언어로 재구성(再構成)한다

여기에서는 이전된 자료를 수용언어의 어법에 맞게 재구성(restructuring)하는 것이다. 재구성 단계에서는 자료 언어의 구조가 수용 언어의 구조로 바뀌어 진다. 이 단계에서 형식 일치가 깨어진다. 문법의 구조와 형식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면 번역은 성공한 것이다. 자료 언어의 본문이 수용언어에서 재구성될 때 수용언어 독자가 본문에 대하여 갖는 반응과 자료언어 독자의 본문에 대한 반응이 동일할 때 그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다.

(1) 존대법의 적용

예를 들면, 9-10절의 “하늘의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당신의 그 나라가 오십시오.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9-10절)의 경우, 우리말 번역사를 보면, 이 본문을 우리말로 재구성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존대법과 관련된 2인칭의 번역이었다. 기도하는 이가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나 “너”라는 말을 쓸 때 우리말 독자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너”나 “당신”이니 하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과 같다. 1892년에 나온 아펜젤러의 『마태복음전』(대영성서공회 미이미교회인쇄소)은 주기도의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9) 우리하늘에게신아바지아

네일흠이거룩흐심이나타나옵시며
 (10) 네나라히림흐옵시며
 네뜻시하늘에서처럼짜에서도일우여지이다

개신교뿐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초기에 이런 번역을 볼 수 있다. 1910년에 출간된 한기근 번역 『사사성경(四史聖經)』(성서활판사, 1910)에서는 주기도의 이 대목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천주경(天主經)의 기본 토대가 되어 오래 동안 사용되었었다.

(9) 하늘에 계신우리아버신자여
 네일흠의거룩흐심이나타나며
 (10) 네나라히림흐시며
 네거룩흐신뜻이하늘에서일움궂치
 짜해서또흔일우여지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라느니 “당신”이라느니 하는 것은 우리말 성서 번역역사에 서는 사라졌다. “너의”나 “당신의”를 쓸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버지의”라는 실명사를 대치해 본 역사도 있다. 존 로스 번역팀이 번역한 최초의 마태복음인 『예수성교전서 맛디복음』(심양: 문광서원, 1884)에서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9) 우리하날에 계신아바님
 아바님의일흠이성하시며
 (10) 아바님나라이님 흐시며
 아바님뜻이땅에일으기를
 하날에헝흐심갓치하시며

한국교회 성서번역사에서 위의 두 대안은 일찍이 사라지고 새로운 전통이 일찍부터 창조되었 다. 1895년 성서번역자회의 아펜젤러가 번역하여 『마태복음』(정동예수교회당, 1895)에서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고 이것이 『개역』 주기도의 전시이다.

(9) 하늘에 계신우리아버지여
 일흠이거룩흐심이나타나시며
 (10) 나라히림흐옵시며
 뜻시하늘에서처럼
 짜에서도일우여지이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이름”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 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 이라고 하는 착상이다. 이런 착상은 세 가지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첫째는 주어진 문맥 안에서 이름과 나라와 뜻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구태여 사용하기 어려 운 2인칭 소유격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의사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착상이 히브리적 사고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이고⁸⁾, 셋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존대법의 적용을 오히려

8)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이름”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름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יהוה를 발음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이 이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오기를 한 세기 이상 해왔으므로 이미 이런 표현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창작이라기보다는 부르기 어려운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우리말 언중의 심리를 그대로 살린 것이기도 한다.

(2) 문법 형식의 조정

자료본문의 문법 형식이 수용본문에서는 수용본문의 어법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주기도의 첫 세 간구는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3인칭 단순과거 명령형이다. 그리스어의 이러한 문법 범주가 우리말에는 없다.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우리말 어법을 살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그리스어의 수동태를 우리말 능동태로 바꾸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달리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도 있다.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4. 현대의 번역이론에 비추어 본 주기도의 번역

우리말 주기도의 번역 역사만을 보더라도, 번역이라는 것이 “문자(文字) 대 문자 번역”과 “의미(意味) 대 의미 번역”만으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지시적(指示的) 번역”과 “내포적(內包的) 번역”만으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직역(直譯)”(낯선 문장, 사용되지 않는 문장)과 “의역(意譯)”(익숙한 문장, 잘 사용되는 문장)으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독자를 저자에게로 이끌고 가기 식의 번역”과 “저자를 독자에게로 이끌고 가기 식”의 번역만으로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는 것, 번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다의 이론이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적용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주기도 번역에서도 모든 형태의 번역이 동시에 시도되었고, 서로 결합되기도 하고, 형식일치나 내용동등성의 정도가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음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번역학의 논의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논의에서 어떤 통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아마도 우리는 번역(translation)이라는 개념 대신에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써야 할 것이다. 즉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본문에서 다른 본문으로의 통제된 변형(a regulated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써야 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혹은 한 언어 안에서, 순수한 기의(記義 signifiers)를 ‘전달’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며 해 본 적도 없는 일이다. (Jacques Derrida, Positions, tran., Alan Bass, 1981)⁹⁾

아마도 우리말 번역(翻譯)의 한자어의 뜻을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번역은 그대로 ‘ 옮겨

름이 나오면 “아도나이(주님)”이라고 읽던가 “핫셈(이름)”이라고 읽는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집”이라고 하면 “성전”이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다. “벽”이라고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남아 있는 벽을 일컫는다.

9) Aloo, 287에서 거듭 인용함

다 놓은 것(transfer)'이 아니라 한 번 '뒤집는 것(transformation)'이기 때문이다.

각 본문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본문의 번역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본문의 번역이기도 한 것이다. 그 어떤 본문도 완전하게 독창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그 본질상 이미 번역이기 때문이다. 즉, 첫째는 비언어적 세계(nonverbal world)의 번역이기 때문이고, 또한 각 기호와 각 어구가 다른 기호와 다른 어구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Octavio Paz)¹⁰⁾

주기도의 그리스어 본문 자체도 원문이 아니고 번역문이라는 점은, 현대의 번역이론에 입각하여 다른 기회에 달리 더 상세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 역시, 말로 된 것을 글로 옮긴 과정을 겪으면서, 억양과 몸짓과 표정 등 의미를 풍요하게 해 줄 요소들은 사라지고 본문만이 남는 굴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도발적인 한 의견을 인용한다. 바스넷의 말이다.

번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원 본문을 다시 쓰는 것이다. 다시 쓰기를 하게 되면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어떤 이데올로기와 시학(詩學 poetics)을 반영하게 되며, 그 자체로서 작품을 조종(manipulate)하여 그 작품이 주어진 사회 속에서 주어진 방식대로 기능을 행사하게 한다. 다시 쓰기는 힘에 의한 조정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작품과 사회의 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다시 쓰기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장르,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기에 번역의 역사는 또한 작품 혁신의 역사이며,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힘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다시 쓰기는 혁신을 억제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 모든 종류의 조종이 증가하는 시대 속에서, 번역으로 예시되는 작품 조정 과정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Susan Bassnett,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1999)¹¹⁾

현재의 『개역』 주기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은¹²⁾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말로 “다시 쓴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과 시학(詩學)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번역된 주기도가 한국교회에서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작품은 조종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종은 개인 번역자가 하지 못한다. 주기도를 사용하는 교회라고 하는 큰 힘이 다시 쓰기를 조종하거나 제약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도된 여러 가지 다시 쓴 주기도가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조종(操縱)과 조정(調整)의 과정이, 때로는 새로 쓰기의 포기(拋棄)가, 지속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조정된 새로 쓰여진 주기도는 긍정적인 면에서 주기도 자체의 의미 이해는 물론이려니와 다시 쓴 그 주기도가 한국교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쓰여진 주기도, 곧 한국교회가 참여하여 새롭게 개정하거나 번역한 주기도는 우리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누티의 말을 인용한다.

외국어 본문과 번역문은 모두 파생적(派生的 derivative)인 것이다. 즉, 둘 모두 외국어 저자나 번

10) Aloo, 287에서 거듭 인용함

11) Aloo, 288에서 거듭 인용함

12) 예를 들면, 현재의 『성경원문연구』 8집에 실려 있고, 2000년 1월 15일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 김창락, “주기도문의 번역문제”, 나채운, “주기도문의 번역상의 문제점”, 정훈택,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번역하며” 등은 모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역자가 창작하지 아니한 다양한 언어 문화적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다양한 언어 문화적 자료들은 상징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정도를 넘어 그 자료들의 의도와 충돌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국어 본문은 서로 다른 많은 의미론적 가능성이 모인 곳이 된다.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이 어떤 한 가지 번역에서 단지 잠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한 고정의 근거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상이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가정과 해석학적 선택이다. 의미는 다원적이고 우연적인 관계이다. 불변하는 통일된 실체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의 평가는 수학에 근거한 개념, 곧 의미론적 동등성이라든지, 일대 일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학적 오류가 없는 번역들이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외국어 본문에 호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에서의 정확성의 기준과 ‘충실성’ 혹은 ‘자유’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언어학적 오류’라는 개념도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문학적 본문에 있어서 ‘오역’이라고 비판받은 것이 오히려 수용 언어 문화 속에서 이해 가능할 분 아니라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번역의 생존력(生存力 viability)은 그것이 생산되고 읽히는 문화, 사회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정립되는 것이다.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 A history of Translation*, 1995)¹³⁾

주기도의 본문에 사용된 개별 개념은 역시 파생적(派生的)인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과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한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말씀하셨다(마 5:16, 45, 48; 6:1, 8, 14-15, 26, 32; 7:11; 10:20, 29; 18:14; 23:9).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 특히 에스겔서의 배경에서 파악될 수 있는 파생적 개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사람)이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이 세상에서 회복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뜻한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경건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개역』 본문에서 인용한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겔 36:2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겔 38:23)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비축 경제가 아닌 평등주의 경제 질서, 먹거리를 어느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만나 경제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풍요경제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가 내다 본 평등경제질서이다. 평등경제에 대한 그들의 이상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 광야에 와 있었다. 드디어 식량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였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만나가 지닌 신비스러운 신축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이라고 하셨다.

13) Aloo, 297에서 거듭 인용함

(15)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16)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다.”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19)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다. (20)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다. 그랬더니, 남겨 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출 16:15-20)

여기서 우리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만나의 신비스러운 신축성과, 먹고 남은 것을 다음날을 위해 남겨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남겨 둔 음식에서는 구더기가 쪼고, 모세는 음식물을 남겨 두었던 이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지향한 이상적인 평등경제의 질서를 본다. 여기에는 잉여 물자라든가 소비 상품의 비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 다른 이들보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그 날 먹을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도록 요청 받은 것이다.

“용서”에 관해서도 사람끼리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것은 외경의 『집회서』에서 볼 수 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네 죄도 사해될 것이다. (외경 『집회서』 28:2)

“나라와 권세와 영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誦詠)은 그 배경이 구약의 역대기이다.

(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대상 29:11-12)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리스어 본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문이 아니다. 이 그리스어 본문에는 서로 다른 많은 의미론적 가능성이 집적되어 있다. 그 다양한 여러 의미 중에서 한 의미를 우리 한국 개신교는 『개역』의 주기도 번역에 잠정적으로 고정시켜서 지켜왔다.

번역 초창기 1900년을 전후한 기독교 전래 시대에 선교사들이 속했던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상이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가정과 해석이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번역을 정착하게 한 것이다. 우리말 번역만 하더라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수 십 가지로 번역된 주기도가 나왔다.¹⁴⁾ 이러한 다양한 번역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 새롭게 제안된 여러 번

14) 나채운,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에는 1887년 『예수성교전서』의 주기도를 비롯하여 지난 한 세기 동안 번역된 우리말 주기도 26 개와 중국어역 10개, 일어역 36개, 란틴

역에서 보듯이, 이 다섯 절 밖에 안 되는 주기도의 그리스어 본문도 의미는 다원적(多元的)이다. 어떤 하나의 불변하는 통일된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번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수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낱말의 수량적 일치를 계산한다거나 문법적, 혹은 문장론적 형식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또 내용동등성 정도를 가늠해 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번역에서의 정확성의 기준과 “본문에의 충실성” 혹은 “본문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뜻을 옮기는 것”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늘 바뀌어온 개념이다. 『개역』 주기도의 “오늘날”을 오늘날 개념에서는 오역이라고 하지만 개화기에는 지금의 “오늘”을 “오늘날”이라고 써 왔다. 『개역』에 남아 있는 “오늘날”은 거의 “오늘”의 의미이다. 때로는 “언어학적 오류”라는 개념이나 심지어 “오역”이라고 비판받은 번역문이 오히려 수용 언어 문화 속에서 잘 이해되기도 한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형식일치 번역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내용동등성 번역을 오역이라고 혹평했고, 내용동등성 번역을 주장하는 아들은 한 때 직역은 오역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번역의 생존력은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읽히는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사회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정립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나채운 교수의 발제를 읽고

1) “문법상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된 것은 번역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우리말 문법의 반영으로서 현대의 확정된 우리말 문법과의 차이일 뿐이다. 새로 번역이 된다면 당연히 현대의 확정된 우리말 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어휘나 표현상 부적당한 것” 중에서 “2인칭 대명사 문제”는 『개역』이나 『개역 개정판』의 주기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역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에게 2인칭 존대로 “당신”이라는 말을 쓰자고 한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악의적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선의적으로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언중(言衆)의 말살이가 바뀌면, 주기도에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때가 무르익어 그렇게 하자고 할 때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은 의견이 갈라져 있는 만큼 언어생활의 현실을 더 살피면 좋겠다.

3) “하기아스테토 오노마 수(ανιασθητω το ονομα σου)”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하는 수동태 문장에서 에이전트(agent)가 사람이냐 하나님 자신이나 하는 것은 의미의 다양성에 기인된 의미의 불확정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종말론적 해석과 윤리적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기도 전체의 간구[鬮]의 구조와 구약적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 같다¹⁵⁾. 다만 하나를 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르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 독선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설득력을 상실 할 수도 있다. 그의 제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잘못된 번역인가를 지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4)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뒤틀린 관계는 “죄”라 하고, 따라서 그 관계의 회복을 “용서”라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뒤틀린 관계는 “잘못”이라 하고, 그 경우, 관계의 회복은 “사(赦)함”이라고 하자고 하는 그의 주장은 존대법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지

어역, 독일어역, 프랑스어역, 영어역(22개) 등이 소개되어 있다.

15) 여기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서는, 민영진, “사람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주기도의 첫째 간구의 뜻과 우리말 번역-”, 『신학과 현장』 제4집(1994), 77-91.

만, 일반 언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너무 자의적(恣意的)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죄 개념을 그 밑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5) 그리스어 페이라스모스(πειρασμος)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시험”보다는 “유혹”으로 하자고 제안하는데, 가능한 제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시험”을 비판함에 있어서 우리말 국어사전에 근거하여 “시험”의 부당함을 논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교회가 한 세기 이상을 주기도를 통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는 “시험”이라는 말에 독특한 의미와ニュ앙스를 주어 왔고, 기도를 한 이들은 그 독특한 의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6) 송영의 “대개”에 관한 연구는 해박하다. “대개”의 의미가 오늘의 독자들에게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고 이해되거나, “대강 말해서, 대체적으로”라고 이해되는 것이라면, 삭제해 버리자는 그의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국어학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